

美 긴축에 게임株 연일 하락세 “신작일정 따라 장기전략 세워야”

한국거래소
이달 게임 K-뉴딜지수 8.44% ↓
“국내 게임주 올 성장세 꺾일 것
장기적으로 주가 우상향 가능성”

2차전지 등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게임주는 연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적 부진에다 미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재차 불거진 것이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신작 출시가 게임주의 방향성을 가를 것으로 분석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개 게임 종목으로 구성된 KRX 게임 K-뉴딜지수는 이달 들어 8.44% 하락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카카오게임즈가 12.92% 떨어지며 나뭇이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위메이드(-10.67%), 넷마블(-9.55%), 펠어비스(-9.48%), 엔씨소프트(-8.86%), 네오위즈(-8.21%), 더블유게임즈(-7.13%), 넥슨게임즈(-6.90%), NHN(-4.48%) 등이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부터 미 연방준비제도(Fe

netmarble

NEXON

NC
KRAFTON

kakaogames

d·연준)의 금리 인상 완화 기대감으로 국내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2차전지 등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졌으나 최근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나오면서 성장주 중 게임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으로 게임주를 포함한 성장주는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가 산정되므로 금리가 높을수록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져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

른 성장주 대비 게임주가 부진한 것은 어두운 실적 전망 때문이다.

최승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게임주는 코스피 대비 4.5% 언더퍼프(시장 평균 하회)으로 올해 들어 최악의 퍼포먼스를 기록했다”며 “게임섹터는 성장주로 분류되지만, 국내의 경우 올해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대비해서도 조정이 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작 출시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비중 확대를 추천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의 게임주 투자 전략이 타이밍을 중시한 단기 투자였다면 이제부터는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부담이 적은 가격대에 매수하고 보다 장기적인 신작 출시 일정을 바라보며 투자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2025년까지 대형 게임사들은 크고 작은 신작을 모바일, PC, 콘솔 등 모든 플랫폼에 출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실적과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더 글로리’ 흥행에도 제작사 주가는 잠잠?

스튜디오드래곤, 재계약 등 실적개선 기대감

KRX, 주가 5.12% 내린 7만6000원
“넷플릭스 재계약, 수익성 개선 예고
올 타 글로벌 OTT와 계약 예정”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글로리 파트2’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지만,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의 주가는 잠잠한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튜디오드래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100원(5.12%) 내린 7만6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CJ ENM의 자회사로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다. 지난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공개한 드라마 ‘더글로리’가 공개 3일만에 전 세계 TV쇼 부문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10일 공개한 더글로리 파트2도 역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팩트를 기준 글로벌 2위를 차지하면서 흥행 돌풍을 이어갔다.

그러나 더글로리 성공에도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콘텐츠 관련주들이 작품 공개 후 흥행에 성공할 경우 주가가 크게 오르면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연초 8만5300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달 22일에는 7만5800원까지 하락했다. 이달 들어서 8만원선을 회복했지만, 최근 더글로리 파트2 공개 이후 차익 실현 매물로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에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1.4% 감소한 12억원에 불과하면서 실



지난해 12월2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더글로리’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송혜교 등 주역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

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부진한 주가 흐름에 일조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스튜디오드래곤이 콘텐츠 경쟁력을 인정받는만큼 향후 올해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높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콘텐츠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넷플릭스와 공급 조건과 기간 등 이전보다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신은정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넷플릭스 재계약을 통해 지난 3개년보다 높은 리콥율(제작비 회수율)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예고했으며, 타 글로벌 OTT와의 장기공급 계약도 올해 중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넷플릭스 공급계약 갱신 및 디즈니 등 신규 OTT향 납품 본격화로 글로벌 판매 협상력이 재차 강화되는 구간”이라며

“평가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방영 예정된 작품을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황성진 흥국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프리미엄 IP를 활용한 작품의 대량화 기조에 주목한다”며 “텐트폴(대작) 수준을 넘어서는 초대형 IP를 활용한 대작 라인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흥행성이 검증된 스위트홈, 경이로운소문, 아스달연대기 등의 시즌제 방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중국 OTT 내 한국드라마 진출 역시 호재라는 평가다. 이화정 연구원은 “중국 내 한국드라마 방영 지표가 개선되면서 신작 동시방영 재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류스타 출연작품이 풍부한만큼 수혜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영석 기자 ysl@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스시

올 주총 관심사 ‘축소 배당금·경영진 선임’

국내 증권사 정기주총 시즌 돌입
삼성증권·메리츠증권 17일 개최
신한증권·한화투자증권은 22일

이번주부터 국내 증권사들의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다. 올해 주총 주요 안건으로는 축소된 주당 배당금과 대표이사 및 사내·외 이사 선임이 주를 이룰 것이라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17일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정기 주총이 개최된다. 이어 22일에는 신한·한화투자증권, 23일 미래에셋·NH·하나증권, 24일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의 순이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증시 침체에 따라 주당 배당금을 축소했다. 단, 자사주 매입과 배당성향 확대 등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삼성증권은 2022년 결산배당금을 주당 17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도 배당금 3800원에 비해 55.2% 줄어든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결산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200원(우선주 220원)으로 책정하며 전년도(300원)에 비해 33.3% 줄였고, NH투자증권도 결산배당금으로 주당 700원을 책정하며 전년(1050원) 대비 33.3% 낮췄다.

이 외에도 대신증권(1400원→1200

원), 다올투자증권(250원→150원), 유안타증권(180원→110원), 교보증권(500원→200원), 현대차증권(800원→550원) 등이다.

또 공통적으로 배당 관련 정관변경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증권사들은 “매 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기존의 정관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려 한다. 해당 안건을 통해 이사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며, 배당 규모가 확정된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배당제도는 상장 기업이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다. 이후 다음 해 3월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이 이뤄진다. 즉,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뒤 배당금 지급까지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절차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당금 규모가 결정된 후 투자가 가능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뿐더러 배당금 지급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이어 대표이사 및 사내·외이사 선임 안건도 올랐다. 대표이사의 경우 연임 또는 신규 선임을 대부분 확정지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서울 아파트 전세비중 2개월째 확대

지난달 임대차 계약 1만9479건 중
전세계약 1만1272건, 57.9% 차지

서울아파트 전세 비중이 2개월 연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세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1만947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계약은 1만1272건으로 임대차 계약의 57.9%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전세 비중은 49.5%로 월세가 전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해 1월과 2월 전세 비중은 각각 56.5%, 57.9%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전세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

을 보면 3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58%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70%)보다 0.12%포인트 축소되면서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하락폭은 지난해 1월 31일(-0.02%) 이후 58주 연속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수 억원씩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아이파크’는 이달 전용면적 119㎡가 19억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 1월 전셋값(22억원) 대비 3억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래미안 아이파크’는 지난달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이 11억2000만원으로 손바뀜되면서 1개월 만에 전셋값(13억원)이 1억 8000만원 떨어졌다. /김대환 기자 kdh@